최중증장애인 위한 활동지원사 전문성 향상 방안 토론회

광주근육장애인협회, 나 현 시의원과 공동주최

"노동강도 상관없이 일률적 급여에 기피 대상"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는 광주광역시의회 나 현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지난달 28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광주시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활동지원사가 매칭 되더라도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케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 현 의원이 좌장으로 자리하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희경 교수가 발제하였다.

더불어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 장익선 회장,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은영 부장, 활동지원사 문미자씨, 최중증장애인 당사자 홍성혁씨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근육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근육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이다.

최중증장애인들은 고도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위생관리에서 외출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애인들 대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케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토론회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어 최중증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광주시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장익선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에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향상 및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전했다.

장흥군 장평면 지역사회보장協, 사랑의 반찬 '나누어 Dream'

어려운 이웃에 월동기 맞이 김치 및 반찬 나눔행사

장흥군 장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월동기를 맞아 장평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다.

본 행사는 관내 면민 중 스스로 식사를 마련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장보기부터 반찬 만들기,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배달까지 협의체 위원들 및 유금렬 번영회장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소고기장조림, 미역줄기, 고사리무침, 멸치볶음, 배추백김치, 자반고등어, 김 등을 정성껏 마련해 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

김주호 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 건강이 염려됐는데 이 행사를 통해 직접 어르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와 안전을 살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민관 합동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뿌리 뽑는다

오늘부터 4일까지

곡성군이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곡성경찰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주차방해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집중 단속 외에도 전국 일제 단속기간(11월 11일~12월 10일) 동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주서구,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력

광주 서구는 지난달 26일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지원금을 기탁 받아 제작한 장애인차량 인수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탁 받은 중형승합차량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동리프트가 장착됐으며, 휠체어 3대, 17인승 차량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화차량이다.

2007년부터 자치구 처음으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해온 서구는 이동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인근 5개동을 1일 2회 순회 운행해 보건지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